불성 믿고 의지하며 뛰어 넘으세요

☞ 17면에서 계속

짜 나가 아니라, 나를 이끄는 주인이 참 나라는 것을 알아서 스스로 지혜롭게 물리가 터지고 밝아진다면 진정으로 남과 나를 다 벗어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점을 놓치고 있는지…

문 열심히 정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청년법우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가다 보면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서 숙제 검사를 할 때나 무슨 시험을 보고 이럴 때면, 숙제 같은 걸 제대로 못했거나 시험 문제가 아예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제가 어떤 점을 놓치고 있기에 그런 꿈이 꾸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의 근본을 진짜로 믿고 싶은데 진짜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지금 법우님이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법우님 모습이 아닌 참 자기가 살고 있다는 걸 빼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로 믿지 못하는 거죠. 법우님의 모습이 산다고 생각을 하지 모습 아닌 진짜 내가 산다는 생각을 믿지 않고 살기 때문에, 진짜 나라는 걸 빼놓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놓치거나 모르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깐 시험을 봐도 그걸 빠트리곤 하는 거죠. 자꾸 일러주는데도 왜 믿질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무들을 보세요. 뿌리가 달려 있죠? 뿌리가 달려 있으면 믿는다, 안 믿는다도 없이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말없이 그냥 붙어 있다구요. 사실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싹은 뿌리로 인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싹은 이파리가 겨울에 다 떨어져도, 떨면서도 또 봄이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뿌리가 옷을 입혀줄 거다,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혀줄 거다.' 하고 말입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진짜로 믿는 거요.

진짜로 믿는다면, 이 자리에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고, 무엇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조금도 아까운 게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진짜로 믿는다는 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이러는 거지 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면 믿는다고 그러고 주인공 부르고 매달리고, 또 좀 편안하면 그냥 넘어가고 흐지부지해 버리고 이러는 게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한 구멍을 뚫어서 공(空)마당을 만들고 자유스럽게 공을 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내가 근본을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서, 내가 곧 불성이니까 그 불성을 믿고 의지하고 그 불성은 나를 리드해 나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뛰어넘으세요.

왜 가슴에다 놓으라 하시는지

문 좌선을 할 때 집중적으로 관을 하게 되면 모든 생각들이 머리로 올라오는데 머리에 집중해서 하다보니 상기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단전에다가 집중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 스님께서는 가슴을 짚으시면서 가슴에다가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가슴에다가 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 어디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전이다 어디다 한다면, 그래서 호흡을 돌리지 않으면 혈이 돌지를 않아요. 내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빠지질 못해서 머리로 나오거나 옆구리로 나오거나 등뒤로 나오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놓는다는 생각 없이 그냥 우주 한 가운데라고 볼 수밖엔 없습니다. 그게 정수입니다. 정수 한 바다 가운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다 한 것은, 가슴은 수시로 들어가면 돌아서 나가는 데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가슴을 고정시켜서 놓는 것도 아니고, 가슴에 뭐가 부착돼서 거기다가 하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가슴이 기준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눈이 기준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기준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기준이 돼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몸뚱이 한 군데도 빼 놓을 게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 몸과 더불어 하는 것을, 움죽거리고 하는 것을 전부 종합해서 '공하다' 고 한 겁니다. 그러니깐 공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붙인 것은 그건 길을 가기 위한 이름일 뿐입니다. 말하자면 눈이 따로 없고, 코가 따로 없고, 입이 따로 없고, 귀가 따로 없고, 머리가 따로 없고, 가슴이 따로 없고, 심장이 따로 없고, 발이 따로 없고, 손이 따로 없습니다. 그것이 한데 합쳐진 것이 공한 것이니까요. 내가 공한 것을 알면 대천 세계의 공한 것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공(空) 자리에다가 놓되 모든 것을 마음으로 놔라 이겁니다. 그 모든 게 공이니까. 눈도 공이지, 코도 공이지, 입도 공이지, 귀도 공이지, 머리도 공이지, 몸뚱이도 공이지, 발도 공이지, 손도 공이지 전부 공입니다. 아, 생각해 보세요, 공이 아닌가. 손이라고 해서 만날 한 가지 일만 하나요? 하는 일을 보면 수효가 많아서 말도 못하죠? 너무 여러 가지가 돼서, 그래서 모두 공이에요. 나 하나가 공이기 때문에 전체가 공이고, 전체가 공이기 때문에 전체 다 하나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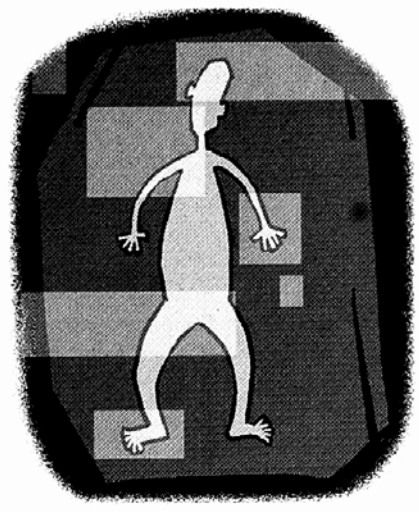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식에 억만금 남겨주는 것보다 근본을 믿고 관할 수 있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공해서 돌아가는 반면에 한생각을 잘못해서 걸려서 돌아간다면, 자꾸 '내가 한다' '너를 줬다' 한다면, 본래부터 공해서 돌아가는데, 우리가 살아나가는 게 그냥 그건데 '줬다 한다면 또 걸리는 겁니다. 사실은 준 사이도 없거든요. 놓고 가는 거니까요. '받았다' 한다면 그것도 걸리는 겁니다. '줬다' '받았다' 이게 다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하루 24시간 살아나가는데, 내가 했다고 하고 모든 걸 하다 보면 걸리는 수효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매듭을 짓기는 쉬워도 매듭을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뭐든지 그렇게 짓지 말고 그저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허탈하게, 허무하게 놓는 것이 아니라 참 다웁게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저 공자리에 놓으라 이겁니다. 그런데 믿어야 놔지지 믿지 않으면 놔지질 않아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일임을 해?" 이런다고요. 그런데 놓으면 그냥 되는 거거든요. 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고 힘이 안 들고 간에 지금 우리는 제일 값비싼,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거를 얻으려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제일이란 말이죠. 이 공부를 참다웁게 한다면 죽어서 재생이 돼 가지고 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했으면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잡지 않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 엄벙덤벙 산다고 해서 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정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본의를 알기 위해, 또 실천하기 위해, 참 사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모든 것을 지극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도벽이 있어요

문 저희 아이는 지금 초등학생인데 도벽이 있습니다.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해보지만 좀처럼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친구들로부터 외톨이가 되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와 아빠가 자꾸 마음이 맞지 않아서 더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스님, 어떻게 이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자기를 다스리고 개발해 나가는 마음 공부를 안하는 사람들은 자식이 잘못하면 나무라고 때리고 이러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때리고 나무란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 해도 마음으로 구슬리고, 그 마음을 섭섭지 않게 똑바로 말해주면서 관해주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사람마다 다 마음이 갈 수 있어야 몸도 가지, 마음이 가지 않으면 몸이 안 가요. 본래는 애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니까요. 즉 말하자면 위에서 내려온 유전의 문제나 인과성으로 인해 그렇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애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억만 금을 남겨주는 것보다 그 자식이 스스로 자기 근본을 믿고 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진정으로 부모의 사랑에 감사함을 느끼는 자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똑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일러주세요. "너의 몸이 형성될 때 엄마 아빠로 인해서 몸은 태어났지만, 너의 생명력은 네가 가지고 나온 거야. 그래서 몸은 부모로부터 받았으나 그 생명력은 네가 가지고 온 거니까 그것이 지금 너 이전의 과거 부모, 즉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주인공, 너만이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어! 또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걸랑 아예 그렇게 하지 않게끔, 아예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주인공 이끌라고 관하는 거다." 하고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공부도 잘하게 해야 심부름을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관하게끔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부모는 아이 친구들이 따라다니면서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게 '당신만이 보디가드가 돼 줄 수 있어.' 하고 관해줘야 해요. 그렇게 해도 자꾸 괴롭힌다면 아이에게 아주 소상히 일러줘서 납득을 하고 스스로 관할 수 있게 가르치세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고 스스로 그렇게 관할 수 있도록요.

즉 말하자면 누구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예요. 현재 자기가 정신계의 자기를 믿는 거죠. 나무로 치면 뿌리가 되고, 타고 다니는 차로 말하자면 운전수가 되는 거예요. 운전수가 자기지·차가 자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고 정신차려서, 아이도 정신차리고 그래야 얕으로 잘 살고 남한테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그 아이의 죄 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사과상자에는 사과만 넣어요, 배 상자에는 배를 넣고요. 끼리끼리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썩는 사람이나 그렇게 속 썩게 하는 사람이나 둘이 똑 같애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거를 다 멸하게끔 자꾸 관하시고, 애도 관하고 이러면서 어린이법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스님네들이 보조를 해주지 않겠어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조를 할 수도 없으니까요. 가족들이 서로 마음이 그렇게 힘들어져 버리면 돈도 생긴다 싶으면 없어지고, 쓸 만하면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게 열심히 관하세요.

아이 탓만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부모들이 이 마음 도리를 지극하게 배우고 실천하면서 자식들을 이끌어야만 자식들에게도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또 그 자식들 스스로 자기 양식을 꺼내먹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겁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아이에게도 관하는 도리를 반드시 일러주시고요.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작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I. 기존의 「육임래정비법 개정 증보판」을 구입하신 분 께서 금번 「혁신판」으로 교환해 보기를 원하시면 710,000원을 입금하십시요. 새책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입금 구좌는 도서출판 복문에서 안내하는 본 신문 광고에 있습니다.
이책의 신통함은 이미 검증 되었을 줄 믿고, 더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만들어 놓았음을 말씀드립니다.

II. 금번 한국육임학회에서는 본회 총재이신 효사선생님을 강사로 모시고 육임학당 효사숙을 개설하여 육임학의 소수 정예화를 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강습기간 : 2002년 2월 15일부터 3개월간 12주
- 강습시간 : 매주 3시간 (36시간)
- 강습날짜 : 매주 화 금요일 중 택일 오후 7시부터 3시간
- 강습정원 : 매 기(期) 30명
- 등 록 비 : 매 기(期) 100만원(선납)
  주택은행 542701-01-044676
  이수동 · 육임학당
- 등록기간 : 2002년 2월 5일까지
  지방에서 통학 하실 분은 강습 당일 밤 유숙 가능합니다.

※ 참고로 사주 10년을 해도 육임 3개월을 공부한 육임가의 판단능력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장소 안내 :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90-49 강북 구청 왼쪽 옆 건물 일심빌딩 4층(육임학당 효사숙)
지하철 4호선 수유역 하차 8번 출구
문의 전화 : 효사숙 02-998-8683
사무국 02-826-0179

권 대창 불교 건축

- 사찰 대웅전 건축 전문 업체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 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 하실 스님 상담 환영

권 대창 목재

* 태백산 일대에서 벌목한 육송
- 판매 종류규격
- 연목 : 12자~24자까지 5치~8치
-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자 2치
  18자 : 1자 ~ 1자 8치
  20자, 24자 : 1자 ~ 1자 8치
  30자 : 1자 ~ 1자 7치
  36자, 40자 : 1자 ~ 2자까지
- 기둥 · 도리 · 대들보 · 일주문 기둥

※ 원하시는 치수로 제작 가능합니다. 주문 연락 주십시요.

(주) 대창종합개발
대표 본사 02)595-1573 FAX 02)595-1575
전화 제1공장 054)781-4989 FAX 054)781-5989
H·P 019)327-0374
이종봉 합장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山蔘의 효력이 없다고요?

만삼蔓蔘(黨蔘)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에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제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약재라 합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변비가 낳았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천식이 떨어졌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혈색이 좋아졌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黨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읍니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심정으로 염가에 드리고저 합니다.
(시중가 Kg당 3만5천원을 1만 5천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 蔓蔘(黨蔘)을 드시기쉽게 달여 드립니다.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P 016-345-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